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2021. 7. 22.(목) 오전 9시
Zoom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주관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장철민

▣ 목 차 ▣

I. 발표문

- 펜데믹 시대의 청소노동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김영 교수 1P

II. 토론문

-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 책임은 어디에 있나
 ■ 한겨레신문 채윤태 기자 16P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미화원 사망 관련 토론자료
 ■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박문순 법규정책국장 22P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국회 토론회 발제문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이재현 대표 40P

2021. 7. 22.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팬데믹 시대의 청소노동

김영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차례

- 들어가며
- 청소노동자의 규모와 구성, 노동조건
- 복합적 차별 실태
- 코로나19와 청소 노동
- 직접 고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 청소 노동 노무관리의 특징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어가며

-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작업장 내 사망.
- 2020년 산재 사망자 822명(고용노동부)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비정상이 지배하는 사회



- 청소 노동: 도시의 유령 노동
- "청소 작업복의 비밀이 뭔지 알아?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켄 로치, 2000. <빵과 장미>)
- 팬데믹 시대의 청소노동: 거대도시의 생존을 위한 필수 노동
- 전염병의 '예방'에는 의사보다 청소노동자의 기여가 크다.

한국청소노동자의 규모와 구성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07천 명(전체 취업자 중 4.1%, 직업 소분류 중 4번째)
- 여성 68.1% 754천명. 소분류 여성직업 중 2번째(1위 매장판매종사자 960천명)
- 50세 이상 89.0%, 중졸 이하 55.8%(청소노동자가 포함된 직업중분류인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388천명 중 비율)
- → 청소노동: 중고령, 저학력, 여성의 노동 → 복합적 차별의 대상

한국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2019)

고용노동부, 2020. 「2019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성비(%)	평균연령(세)	평균근속년수(년)	월간근로일수(일)	월간노동시간(시간)	월평균급여(천원)
전직종	계	100.0	42.6	6.7	19.9	163.6	3,720
	여성	38.4	41.4	5.1	19.7	156.1	2,827
	남성	61.6	43.4	7.7	20.0	168.3	4,277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계	100.0	59.7	3.4	21.1	150.1	1,875
	여성	70.5	60.6	2.8	21.0	144.3	1,672
	남성	29.5	57.4	3.8	21.6	164.1	2,361

- 전체 노동자와 비교한 특징: 높은 여성비, 단기근속, 긴 근로일수, 단시간노동(여성), 저임금
- 최저임금 도깨비 방망이
- 주휴수당포함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10,020원
- 여성청소노동자 시급, 11,611원
- 남성청소노동자 시급, 14,388원
- **성별임금격차(시간당임금) 23.9%**

복합적 차별 실태: 간접고용과 성차별

- **간접고용: 72.2%** (2016년, 노동연구원. 성민재/안정화, 2016)
- **성별임금격차: 23.9%** (2019년, 고용노동부)
- **성별에 따른 직무/공간 분리:** 건물 안과 밖의 분리. 청소원과 환경미화원의 용어 구분. 거리청소노동자는 모두 남성

복합적 차별실태: 휴게공간의 부재

- 저녁 때라도 시원하게 옷 좀 잘 갈아입고, 그렇게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좀 좋았으면 싶더라고요. (중략) 일일이 또 열쇠도 있어야 하니까. 열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고 더워도 내 있는 데(창고)가 낫지 싫어서. 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가. 딱 수건을 빨아놨더라. (학교 청소노동자)
- 내가 쉬는 자리도 없고 쉬는 데도 없고. 원래는 경비실을 갖다가 쉬는 곳으로 쓰라고 말했는데 경비가 싫어해요. 자기 방이라고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창고, 약품 놔 둔 창고에서 잠깐 한 10분, 20분 좀 쉬었다가. (학교 청소노동자)
- 정 힘들고 하면 (화장실) 바닥에 박스 깔고 다리 뻗고 쉬어요. 아침 싸가지고 간 거 거기서 먹는 거예요. (건물청소노동자, 김소연/김영미, 2015)

복합적 차별실태: 휴게공간의 부재



- *창고, 계단 아래, 심지어 화장실, 창문은 커녕 환기구조차 없는 밀폐되고 냄새 나는 공간. 그 곳이 청소노동자들의 식당이며 휴게실이다*(오마이뉴스, 2010. 8. 31.)

복합적 차별 실태: 과중노동과 무급노동

- (혹시 혼자서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 개수나 혹은 변기 개수를 알고 계세요?) **대변기 소변기 포함해서 총 166개** (화장실 수는요? 남녀 따로 해서) **24실**. (정말 많네요. 혹시 일손이 부족해서 다 하실 수 없는 날이 있으세요?) 일을 못하고 가는 날은 없어요. 다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요**. (학교 청소노동자. 1일 7.5시간. 학생수 1,252명)

복합적 차별 실태: 과중노동과 무급노동

- (아까 주사님이랑 인터뷰 할 때 일찍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일찍 오시는 건가요?) 내가 왜 빨리 오냐면~(한숨), 제가 청소를 대충 대충하면 6시간이 얼마든지 남아요. 남는데, 내 집처럼 깨끗이 하려니까 이 많은 규모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3시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일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7시에, 여기 오면 7시, 본래는 8시 출근인데, 내가 왜 7시에 오냐 하면 좀 하고 내가 10분이라도 쉬려고, 그래서 내가 1시간 빨리 옵니다. (학교 청소노동자)
- 우리는 마음이 그거 해 가지고[바빠 가지고] 일찍 와야 되지, 늦게 오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는 기라. 항상 일찍 와 가지고 대기해 갖고 있는 그 습관이, 탁 일하고 쉬었다 가는 그게 아니고. (중략) (8시간으로 늘리면 좋으시겠어요?) 6시간 하고 좀 일찍 가는 게 낫지, 좀 덜 피곤하고. (근데 한 시간 일찍 오시잖아요.) 한 시간은 일찍 오지. (학교 청소노동자)

복합적 차별 실태: 성희롱

- "관리장이 일상적인 성적 요구를 하며 괴롭혔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더 노골적으로 괴롭힐 것이 걱정돼서, 남편의 죽음조차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 업체 회장이 밤마다 분임장들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내일 출근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내일 니 나오지 마라 이라고, 이 여자들이 그때까지 노동조합이 안돼서 천날 만날 그라고 있었던 거야." (3명의 청소노동자를 9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음이 확인됨) (2006년 민주노동당 A시당 여성위원회 성명서; 박준희 2016에서 재인용)
- (2007년 노동조합이 문제제기, 2003년 청소노조결성, 2009년 원청노조와 통합)

복합적 차별 실태: 막다른 일자리

- 우리가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 나이 먹었다고 짤릴까봐 걱정이 돼.
- 한 군데 계속 있는 거야. 월급이 많은 적든 그대로 있는 거야.
- 당장 나오면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예요. 짤릴까 봐. 나이 많은 것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요.
- 산재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 관리실에 얘기하면 우리는 또 잘리고... 그런 것은 다 감수하고 '이것도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죠.
- '이게 내 짊어진 업이다' 하고 사는 거지,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살아.... (김소연/김영미, 2015)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위험을 통해 작동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감소는 여성·청년층·비정규직에 집중(김유선 2020)
- 코로나19 작업장 집단감염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콜센터, 물류센터 등)
-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시 비정규직 차별
- 후쿠시마 원전사고,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밑바닥의 제염 작업에 투입(이케다 미노루 2019)

코로나와 청소노동: 업무증가와 노동강도강화

- 일이 힘들어졌다 84.4%, 노동강도강화 65.8%, 새로운 업무 추가 52.5%
- 마스크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이 흘러요. 여름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거 같아요.
-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한 번만 닦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번을 닦아요. 전에는 원래 한 번씩은 닦고 두 번씩도 닦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본이 네 번. 공사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손잡이하고...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일이 배로 많아졌어요. (지하철 청소노동자)

코로나와 청소노동: 노동자 배제 방역

- 이렇게 이상한 병이 오거나 재해가 올 때는 우리가 제일 힘든... 정말로 노출돼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보호 받진 못하는 거죠. (중략) 손님들 안전하게 해야 되니 소독하고 약품 하고 뿌리고 하루에 몇 번 청소해라 이것만 돌아온 거였죠.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마스크도 안 주고 무슨 소독을 하라고 하나,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한테 (항의)하니깐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서 못준다, 너거는 용역업체한테 달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지하철 청소노동자)
- 처음에는 그거를 희석하는 걸 안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줘서 우리도 솔루션(소독약품명-필자) 주는데 우리가 알아서 태워서(타서-필자) 썼어요. 쓰니까 멋모르고 썼지만 나중에는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이상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무서워서 그걸 많이 타야 건강에 좋은 줄 알았어요. (중략)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한 것처럼 제가 옆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지하철 청소노동자)

코로나와 청소노동: 고용형태별 보호조치

-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는 승강장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역무실에도 그게 맞긴 맞는데, 역무실에는 딱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 칸막이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중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자체부터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략) 일할 때는 모르는데 역무실에 청소하러 들어가거나 고장이 있어서 신고하러 들어갈 때 보면 그런 게 조금 있죠. (지하철 청소노동자)
- 정규직: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식사시간 분산, 동선전면분리(관제)
- → 고용위계의 가시화를 통한 공고화

코로나와 청소노동: 무방비 노출과 감염공포

- 내 일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96.5%
- 불안하죠.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C역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서 5일장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은데, 노인네들이 돼놓으니까 가래침 같은 것도 많이 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데서도...
- 마스크를 안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내 상대가 싫고예, 또 할아버지들이 가래를 꼭 뱉으면 아- 저게 내 상대가 싫고... (감염경험자)
- 승강장과 대합실의 대소변, 토사물, 이용객이 버린 감염물질, 가정용 쓰레기

- 김순자: 이거 참 창피한 일인데 큰 역이다 보니까 술을 먹고 소변을, 대변에 역사에 보고 할 때 진짜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 가면서 마포를 들고 지웁니다. 오줌 한 거를, 큰 역에는 그게 흔하 있는데 하루는 위격이 대낮에 승강장 쓰레기통에다가 찍 걸쳐놓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핸드폰을 나서 112 신고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하실 오니까 오줌 싸다가 지하철 문 열리니까 기억을 버렸어요. 제가 진짜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그건 짧은 사람이었는데...
- 이선민: 편지 같은 것도 똥을 싸가지고 벗어내놓고 가고...
- 이영선: 그런 건 허다해. 성기 나오는 건 또 어찌고? 성기까지 나오고 이래요 성기까지.
- 김순자: 우리가 역사에서 취약한 건 쓰레기통이 제일 취약합니다. 가래침 뱉죠, 거기에 토사물 있죠. 그게 취약하고 그거 치울 때가 제일 힘들고 토사물 싸왔을 때는 대소변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월요일에 우리가 출근하면 전신에 토사물이에요. 월요일에 (술) 먹고 토사물이예요. 아침에 그러면 그거부터 빨리 지워야 돼요.
- 이선민: 대합실마다 똥도 누고 가고 그래요. CCTV 없는 데.
- 김순자: CCTV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 대변을 보고 갑니다.
- 이선민: 집에 있는 음식을 쓰레기 막 한꺼번에 모아가다 화장실 안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많아요.
- 이영선: 이 쓰레기를 지하실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우리가 A사의 쓰레기를 다 바꿔주는 거 같아요. 정팔로 (중략) 장날 되면 가랑 미고 차에 해서 버린 게 더 많아요. 쓰레기가, 특히 대축 밑에 되면 낭장고, 낭동실 정리 다 해가지고 옵니다.
- 이선민: L역에 있을 때 일인데 여자분인데 기저귀를, 무슨 병이 있는지 기저귀가 냄새가... 병원에서 나온 건 기저귀 같아요. (자기 기저귀가 아니라고) 네네. 어른 기저귀, 천으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걸 뱉놓고 간 거예요. 주기적으로 와서 맨날 버리고 기거든요. 밑부터 여기 와서 버리겠조 자기 집에서 안 버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를 숨을 안 쉬고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요.
- 이영선: (중략) 페트병에 1.8리터 페트병에 그 오줌을 채워서, 그 삭힌 걸 찾다가 한 몇 달을, 맨날 쓰레기통에 갖다놓는 거라 그걸, 그러니까 CCTV를 돌려봐도 그 자리는 딱 들어가는 자리가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코로나와 청소노동: 완치 그 이후...

- 내가 그런 걸 겪고도 내가 여~ 와서 음식을 먹고 하며는 내가 사람도 아니다 시퍼가고, *일날(퇴원 다음날) 딱 출근해가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내가 확 쓰레기통에 버려뺐었어. 탁 버려뺐리고. 여기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고통을 겪고도 여기서 뭐 먹으면 인간 아니다 싶어가~, **아예 일체 안먹어**에, 어느 누가 먹을 거를 줘도 내가 그 자리에서는 안먹어. 집에 가고 와서 먹을 지언정 안먹어. (4:30~16:30 급식)
- 저는 집에서 애들 아빠하고 밥도 따로 먹어. 제가 퇴원하고부터는 밥그릇부터 숟가락부터 전~부 따로 해가지고 애들 아빠 밥먹을 때는 반찬도 따로 달아가지고 자기 반찬 그릇 제 반찬 그릇 따로 달아가지고 (중략) 그래가지고 **애들 아빠하고 얼굴 차체를 마주 안하지**여, **아예 안하고 화장실 갈 때도 소독약을 손소독제 스프레이 그거를 들고 들어가는 들어가서 변기 안에 뿌리고 변기커버 닦고 나오면서 물 내리고 또 뿌리놓고 변기뚜껑 달아놓고 나오고. 문고리도 열고 뿌리고 나오면서 뿌리고. 화장실 갈 때도 이거를 안들고 가면 제가 불안할 거 같은 기라.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호주머니에 넣어 다닙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경험 청소노동자)**
- 퇴원 다음 날 출근
- 집단감염 후 사측 조치: 휴게실에서 식사 때 각자 방향을 달리해서 식사하라는 지시가 전부

직접고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

- 정부정책에 따라 2018~2019년 국공립대학 및 공립학교 용역 및 파견노동자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으로 전환
- 호봉제 및 근속수당 미도입, 비정규직 간 상여금 차이
- 서울대: 정부정책에 따라 2018년 2월 청소·경비·기계·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파견 노동자 76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 모두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수령하지만 법인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학교 청소노동자의 고용형태별 일평균 노동시간 및 시간당 업무량

고용형태	학교수	일평균노동시간	평균학생수	평균시간당학생수
교육공무직	18개교	5.8	584.4	99.1
자활용역	3개교	4.8	349.3	81.2
BTL용역	3개교	13.3*	600.7	51.4

*BTL학교 세 곳 모두 2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

- 월급은 용역에서 할 때가 돈이 많았지. (중략) 용역에서는 여가 화장실 많다는 거 그 사장이, 용역 사장이 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월급을 조금 더 거하게 주지. 일하는 그게 많으니까. 내 보고 그렇다고 좀 더 많이 줬지. (학교 청소노동자)

1교1인배치원칙

- 교육공무직 전환시에 노동시간 감축(3개교) 및 인원축소(3개교)
- (처음 오셨을 때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업무량도 줄었겠네요?) 아니죠. 똑같죠. 왜냐면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준다고 그래서 번기 수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거 뭐한 번씩이라도 [대변기 칸] 문 열어 봤을 거고 한 번 썩이라도 다 알아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 2주 전에 실장님께 “근무시간을 늘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정도 늘리면 좋으시겠어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늘려주면 좋겠어요. 신관이 증축되어 화장실 수도 늘었고 학생 수도 1,000명을 넘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는 교육청 관할이라 시간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화원을 추가 고용할 것까진 아니고, 근무시간 연장을 바라시는 거예요?) 더 고용하면 좋지요! 고용을 못할 시에 시간이라도 늘어달라는 거죠.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땐 2명이 청소했어요. [용역업체 상황일 때] 저는 하루 종일 일했고, 다른 분은 오후에만 일했어요. 전(前)실장님이 2명이 청소하는 학교는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저 혼자 일해요.

방중비(방학 중 비근무)원칙

• 신설학교 주25시간, 방중비 원칙

- 방학 때라고 해서 한가한 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못하던 창틀, 화장실 문짝 이런 걸 닦는데 청소하다 보면 더 꼼꼼하게 일할 때도 있어요. 방학이라고 다른 건 애들도 없다 보니까 3시에 딱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 방학 때는 일 많지. 이거 왁스 작업하잖아요. 애들 있을 때 못한 거 있다 아입니까. 일이 더 많아예. 나도 제일 처음에 올 때 방학 때는 우리 할 거 없이 쉬는 줄 알았거든.
- 방학 중에 다른 학교처럼 한 달을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이 다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고. 아님 일주일에 3번 나오라고 하면 3번 나와야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나올지는 방학되는 시점에 결정을 해주세요?) 네, 그 때 가서 제가 물어봐야 되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계약상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임금도 그만큼 못 받으시겠네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거만 받는 거지예.

처우격차로 이어지는 유령화

• 고립성(1교1인배치)으로 인한 유령화의 심화

-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미화원은 차별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실은 학생이 많으니까 인원이 10명인데,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할머니 열여덟 분이 옵니다. 그분들은 배식 돕기, 식탁 바닥 닦기를 하면서 식당 일을 도와줘요.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께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중략) 인식변화가 있어야 해요. 화장실 청소를 하찮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병가를 쓰면 뒷날 와도 전날의 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도 청소 안 해주니까. 아파서 일을 못했고 뒷날 아파도 일을 하러 오는데, 더 힘들어요. (연가는 있죠?) 연가가 있어서 쓰긴 하는데, 쓰고 나면 뒷날이 힘들죠. (학교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급식조리원·시설관리실무원의 노동시간 및 임금(2020년 A시교육청)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B	급식조리원	시설관리실무원
주당노동시간	25 (학교장계명)	40	40	40
여상비	96.0	-	99.6	10.0
평균연령	61.1	-	51.5	51.6
평균근속년수	2	-	10	12
발급비	방정비원칙 (학교장계명)	방정비원칙 (학교장계명)	방정비원칙	배달업소
기본급**	113.5월	182.3월	182.3월	182.3월
급식비***	13월	13월	13월	13월
취원수당	*	*	5월	*
근속수당	*	*	35.0 (31.2근속년수)	42.0 (31.2근속년수)
가족수당	*	*	-	-
월임금(세전)	126.5	195.3	235.3	237.3
명령유기비	62.5년	100년	100년	100년
달출생복지비****	31.3년	50년	50년	50년
생기상여금	-	-	75년	90년
연임금(세전)*****	1,363	2,100	2,578+가족수당	3,087.6 +가족수당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청소노동 노무관리의 특징

- 명령과 지시만 있고 관리는 없다
-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가 부재. 관리해야한다는 의식 자체의 부재
- 노동/자의 존재 자체의 부인: 유령화
- 숙련 부정= 임금상승규칙의 부재
-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과중노동 요구 -> 다양한 폭력/갑질을 사용하는 인격적 통제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일반적 특징)

임노동계약과 노무관리

- 임금을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겠다는 계약
- 우리는 고용주에게 신체를 판매한 적도 생명을 판매한 적도 없다.
- 고용계약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이동과 축적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노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 노동3권이 필요한 이유
- 고용주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노동과정에서 파손(산재)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관리할 의무
- 노무관리의 목적: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노동/자의 유령화 극복
- 노동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 내가 향유하는 환경이 누구의 노동의 산물인지를 생각해야
-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
- 모두가 마실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는 것
-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을 행하는 것
- 내가 속한 집단/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야
- 주변부에 속한 사회성원의 삶이 개선될 때 나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

-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만 한다.” (켄 로치, 2016.
두 번째 황금종려상(칸 영화제) 수상 소감에서)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 책임은 어디에 있나

한겨레신문 사회부 채운태 기자

100% 쓰레기봉투 옮기며 승강기도 없는 기숙사 뒹اخت다, 혼자서

 채운태 기자 [+구독](#)

등록: 2021-07-06

[f](#) [t](#) [c](#) [l](#) [s](#) [g](#)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
최근 제조작업 등 추가 업무에 스트레스 호소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 채운태 기자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지난달 26일 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족과 노동조합은 "지병도 없었던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최초로 알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397.html

■ 취재경위

지난달 27일 “서울대 기숙사 925동에 오늘(27일) 새벽에 관악서 경찰들이 출동했었다는데, 미화원이 숨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925동과 인근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제보였습니다. 바로 소방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새벽 0시20분께 해당 기숙사에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휴일이고, 당시 출동 소방구급대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바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야 경찰을 통해 “청소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고, 극단적인 선택 흔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대 제2공학관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 것이 아닌지 판단해야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을 찾아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노조와 노동자들과 만나, 당시 돌아가신 ㄱ씨가 일하던 925동의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량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ㄱ씨가 지병이 없었으며, 건강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도 노조를 통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갑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졌듯, 기숙사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드레스코드’를 강요했고, 예고없는 시험을 보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하는 ‘직장내갑질’ 의혹인데, 넣을지 어떻게 기사에 녹일지 고민.

-이런 변화는 이번달 초 새로운 배야무개 안전관리팀장이 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함. 배 팀장은 매주 이라 근무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옷이 그게 뭐냐”며 인사평가 감점을 예고하고, “다지고 오라”고 지시함.

-또 배 팀장은 기숙사 청소 상태를 상시 감시 감독하기 시작함. 여기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인사평가를 잘했다는 평가 문자를 받고나서 “슬펐다”고 토로함. 평소에도 청결 문제가 없었는데, 상시 감독과 압박이었다는 게 청소노동자들의 의견.

-배 팀장은 기숙사 청소노동자에게 매주 시험을 보기 시작함. 시험 내용은 “우리 조직이 개관한 년에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 또 “서울대학교 기숙사” 등을 한자나 영어로 쓰라는 문제도 있었다고 함.

-이렇게 인사평가를 해서 추후 근무지 배치 등에 반영할 목적으로 보인다는게 노동자들의 추측.

- 29일 회사 기사입력 시스템에 써놓은 보고 중 일부

■ 진실공방과 개인 책임화 우려

저는 기사를 바로 쓰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취재된 내용은 모두 올렸지만, 7씨가 돌아가신 사실과 ‘직장내갑질’을 함께 보도하면, 어쨌든 ‘갑질’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릴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과로와 갑질, 그리고 사망 사이에 분명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도 이후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만 이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자였던 배아무개 안전관리팀장이 갑질과 과로, 사망의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과 노무사, 노조 등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건과 별도로 ‘갑질’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사를 써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 전날인 지난 7일 급히, 취재했던 내용 가운데, ‘갑질’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과로’에 집중해 <100ℓ 쓰레기봉투 옮기며 승강기도 없는 기숙사 닦았다, 혼자>라는 기사를 이날 오후 2시께 첫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날인 8일 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질’에 대해 비판했지만, 이어지는 서울대 일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보도로 인해, 갑질은 진실 공방의 도마 위에 올라섰습니다.

구민교 전 서울대 학생처장과 남성현 기숙사 기획시설부관장은 각각 SNS와 서울대 홈페이지에 논란이 될 글을 써놓았습니다.

구민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

남성현 “노조는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다른 청소노동자와 유족을 부추겨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에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서울대는 구 전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학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만, 서울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서울대와 서울대 관계자들의 발언은 놀라웠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일부 서울대 관계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하는 노동자들과 노조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돌아가신 ㄱ씨가 ‘감사합니다’라고 남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배아무개 팀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배 팀장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레스코드’, 필기시험과 같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본인들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매체는 ‘반전 주장’ 등의 표현을 쓰며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그렇게 진실공방은 지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질’ 사태 책임 소재와 돌아가신 ㄱ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은 잊혀졌습니다.

■ 갑질은 누구의 책임인가

배 팀장이 악의가 있어서,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배 팀장은 2015년 석사 학위논문에서 “BLT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운영방식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해 공공의 영역에 도입한다면 공공의 영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썼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연구하고 궁리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구 내용을 실제 기숙사에 적용해보고자 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매체의 보도대로 노조원이 아닌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배 팀장이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질일수도, 갑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 외의 지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 규정에 없는 평가 등이 있다면, ‘갑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다면, 더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러차례 언론과 논문에서 “갑질을 행한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한국 사회의 갑과 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라며 “갑질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한 말씀은 유명합니다.

-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시행세칙을 보면,

제6조(관장·부관장)

- ① 관장과 부관장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에 따라 임명된다.
- ② 관장은 관악생활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입주자를 지도한다.
- ③ 교무·학생부관장은 교무, 학생, 대내외 교류협력 및 입주자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기획·시설부관장은 관악생활관 운영의 기획·조정, 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세칙에 따르면, 관장, 부관장 등은 기숙사 운영에 책임을 집니다. 관장, 부관장들은 서울대 교수들이며, 이 자리들은 모두 서울대의 보직입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를 봐도,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은 서울대 본부 직할로 표시돼 있습니다.

부속시설

본부직할	박물관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관악학생생활관 ▶
	교수학습개발센터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	기초과학공동기지원 ▶
	대학생활문화원 ▶	인권센터 ▶	기록관 ▶
	미술관 ▶	경력개발센터 ▶	평생교육원 ▶
	어린이보육지원센터 ▶	글로벌사회공헌단 ▶	스포츠진흥원 ▶

한 서울대 관계자는 “배아무개 팀장도 청소노동자들과 똑같은 ‘관악사 직원’이다. 왜 같은 무기계약직들한테 배 팀장이 갑질을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관악사’와 ‘법인’ 직원을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관

약사 직원은 말 그대로 관악학생생활관의 공고로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이며, 법인직원은 서울대 법인이 공고를 내어 채용하는 정규직입니다.

돌아보니, 그 말을 했던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계약직들과의 갈등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간접 고용 형태였지만, 2018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접 고용’ 됐음에도 아직까지 청소노동자들은 ‘관악사 직원’으로 주변화돼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갑질’로 힘들다고 호소했을 때, ㄱ씨가 생전에 “제초작업이 힘들다”고 호소했을 때, 925동 청소 업무량이 많다고 호소했을 때, 서울대 ‘법인직원’들은 관리 감독의 책임 의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는 이제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 ‘갑질’이 있었는지 자체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 넘은 방어’와 ‘2차가해’는 아직도 서울대 관계자들의 입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조사에 대해 ‘셀프조사’라고 비판하고, 노조와 유족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조사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 서울대학교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이지만, 서울대에서 사망한 노동자, 노동자 고용문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지, 국회에서도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께서 지난 15일 서울대를 찾아서 “서울대가 영화 <설국열차>처럼 느껴진다. 다른 기차 칸 살면서 다른 칸의 상황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서울대는 ‘관악사’와 ‘법인’의 칸으로 나뉜 것이 아닌가 하고. 서울대, 더 나아가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미화원 사망 관련 토론키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경과

○ 인적사항

- 62년생(여), 2남 1녀 두었음. 2019. 11월 입사. 입사 시 국민체력100 포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통과. 입사 시부터 925동 담당. 고인 및 부군 모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2남 1녀 (막내 고1)

○ 사망 당일

- 2021. 6. 26.(토) 08시 출근, 925동 미화(여학생 사동)

- 기숙사 미화 노동자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선택해서 4시간 근무함. 출근시간도 선택해서 출근. 보통 7시 또는 8시 출근이 통상적임.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주로 각 층의 쓰레기 수거 후 주방(기숙사 학생들이 라면등 간단한 요리 조리하는 장소) 청소임. 쓰레기 수거 업무는 보통 2시간~2시간 반 가량. 당일 쓰레기 업무 마친 후, 휴게실에서 휴식 및 컵라면 취식했던 것으로 추정됨.

- 10시 50분, 926동 담당 미화 허** 조합원과 휴게실 함께 사용. 허** 조합원에 따르면 별 말은 없었으나, 힘들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임. 계속 멍해 있었다고 함.

- 925동 휴게실 6명이 함께 사용. 휴게실 환경은 6명이 사용하기에 좁은 편이나, 옷장 에어컨 등은 갖추고 있음.

- 11시 18분경 여성 조합원 1명과 통화. 말투는 평소 말투와 유사하고, 특이사항 못 느꼈다 함.

- 11시 48분경, 딸과 통화 했다 함.

- 평소 퇴근 시간에 출퇴근 기록 정확히 하였는데, 당일 12시 퇴근이었는데 퇴근 기록 찍히지 않았고, 사망추정 시간 12시임(11시48분~12시 사이),

- 가족이 밤 22시경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찾기 시작. 경찰이 23시에 발견하여 연락을 받고, 부군이 925동 가서 함께 확인. 새벽 2시 30분 장례식장으로 이동.

2) 사망 이후

6/28: 유가족은 장례식장(6/28) 조문 자리에서 노동조합에 산재처리 의사 밝힘. 동료들 갑질 등 호소. 산재 신청과 별도로 갑질 관련 조사 필요성 판단.

장례식장에 교육부총장, 구민교 학생처장(기숙사 관리감독), 기숙사 관장, 부관장, 행정실장, 배기탁 팀장 등 조문. (2019년, 휴게실 노동자 사망사건에서는 총장이 방문)

6/29: 작업량, “갑질” 등 현장 조사. 현장 조합원은 갑질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있고, 산재 처리는 꼭 됐으면 좋겠다고, 가능한 도움은 주겠다고 함. 이 자리에서 제초작업, 드레스코드, 청소검열, 시험 등 갑질에 대해 현장 조합원 진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 이 자리에서 인사평가서 및 시험지 확보.

7/1: 위 조합원 현장 진술을 진술서로 작성. 일단 산재 처리 등 유족 뜻 기다려 보되, 갑질문제는 살아있는 조합원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산재 처리와 무관하게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하기로 함.

7/4: 유족, 노동조합 통해 산재 처리 의사 밝혀 옴

7/5: 유족 포함 노동조합 대책회의. 7/7 기자회견하기로 함.

7/7: 기자회견. 고인의 노동강도 및 전반적 갑질 폭로.

7/8: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페이스 북에 동 사건 언급. “화난 사람

들”(공익 집단소송 시민단체) 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함.

7/9: 구민교 학생처장 페이스북에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등의 취지로 2차 가해. 고길곤, 남성현 등 2차 가해 동참. 유족 산재 처리 공인노무사(일과 사람) 선임.

7/11: 노동조합 구민교 2차 가해 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이재명 등 서울대 기숙사 방문.

7/13: 서울대 오세정 총장 입장문 발표. 노동조합 입장문 반박 입장문 발표.

7/14: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서울대 기숙사 방문. JTBC 2차 시험지 및 925동 현관 CCTV, 쓰레기 양 자료 등 확보.

□ 사실관계 관련

1. 작업량 등

- 작업량(100L 봉투 개수, 무게, 기숙사 동별 학생 수 비교, 코로나 전후 쓰레기 양 비교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정보를 객관적으로 더 파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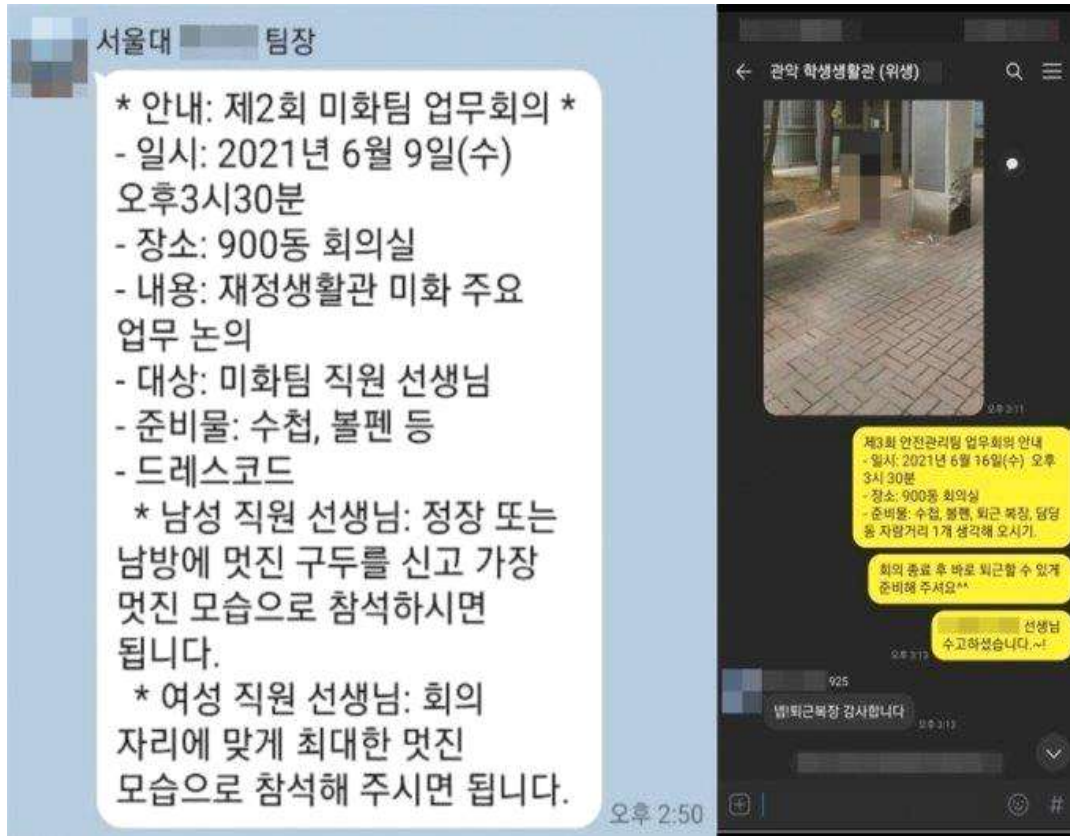
쓰레기가 채워진 100L 봉투 무게는 평균 8~10KG임(거성리사이클링).



- 고용노동부 중량물 기준은 5KG 이상이며, 중량물에 위와 같은 취급 주의 안내문 부착토록 하고 있음.
- 다만, 196명의 학생의 거주공간이기에 쓰레기 양 등 혼자 청소하기에 노동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됨. 사망 당시인 6월 26일까지 시험기간+퇴소기간 가중. 퇴소기간 중 최대 1일 18개(100L)개 나오기도 했다 함.
- JTBC 보도(0714)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쓰레기 양 605L인 반면, 2021년에는 상반기에만 1013L로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정량화 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는 청소 작업 중 극히 일부임. 샤워장, 화장실, 복도, 주방, 유리창, 간이 주방, 세탁기 등 청소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오래된 건물이라 곰팡이 제거가 특히 힘들었다 함.

2. 갑질문제 (6월 1일 안전관리팀장 배기탁으로 변경 후)

-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 지시(6/9 최초 공지)가 있었음은 회의 공지 문자로 사실로 확인 됨. 다만 구민교 등 가해자 입장의 해명은 고인이 드레스코드에 감사(카카오톡)했다고 왜곡시킴.



가해자들 논리라면, 부장님 혼자 즐겁고, 대한민국 직장인 70%에게 걱정거리인 회식은 있을 수 없음. 부장님이 사정이 있어, 1차로 회식을 끝내야겠다는 말에 누군가,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면, 부장님이 이를 1차로 끝내줘서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 회식을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로 오해하는 것과 같음.

해당 표현은 정확히 6월 16일, 세 번째 미화 회의에 관한 공지에 대한 것임. 6월 16일 회의 관련해서는 별도 드레스코드에 대한 공지는 없고, 퇴근 복장으로 오라고 했음. 미화 회의는 15시 30분에 시작해, 퇴근 시간인 17경까지 진행되므로, 따지고 보면, 어차피 퇴근 시간에 퇴근 하는 것이므로 “퇴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특별히 고마울 것도 없고, 퇴근해야 하므로 퇴근복장 입는 것이어서 이 또한 당연한 것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고인은 어쨌든 퇴근시켜준다니까 고맙다고 한 것임.

그날은 드레스 코드가 없는 줄 알고 갔다가, 여전히 입은 옷에 대해 평가 질하는 것을 보고 불편해 했다고 함. 고인이 평소 나뭇잎 무늬 옷을 자주 입었는

데, 그날도 초록색 나뭇잎 무늬 옷을 입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그 옷에 대해 평가라도 하듯, “나뭇잎 무늬? 나뭇잎 무늬?... (훑어보며, 가우똥 가우똥 거리면서) 어... 어... 통과~” 마치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코드가 아닌데, 통과해주는 것처럼 했다고 함. 때문에 다음날 동료에게 “나 나뭇잎 무늬 입은 거 어제 지적 받았다. 그거 입었다고 지적받았어.”라며 얼굴이 굳어있었고, “우리가 최저임금 밖에 못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옷 살 돈 따로 빼 놓고 아무래도 정장 하나 사 놔야 할까봐”라는 얘기 하며 서로, 불편해 했다는 것. 고인도 자존심이 강한데, 옷으로 지적 받으니 매우 기분 나빠했다는 것. 오죽했으면 지금은 할 수 없이 참지만 나중에 위해 다음 회의부터는 녹음을 하자는 말까지 했다고 함.



<16일 지적 받은 나뭇잎 무늬 옷>



<지적 받은 옷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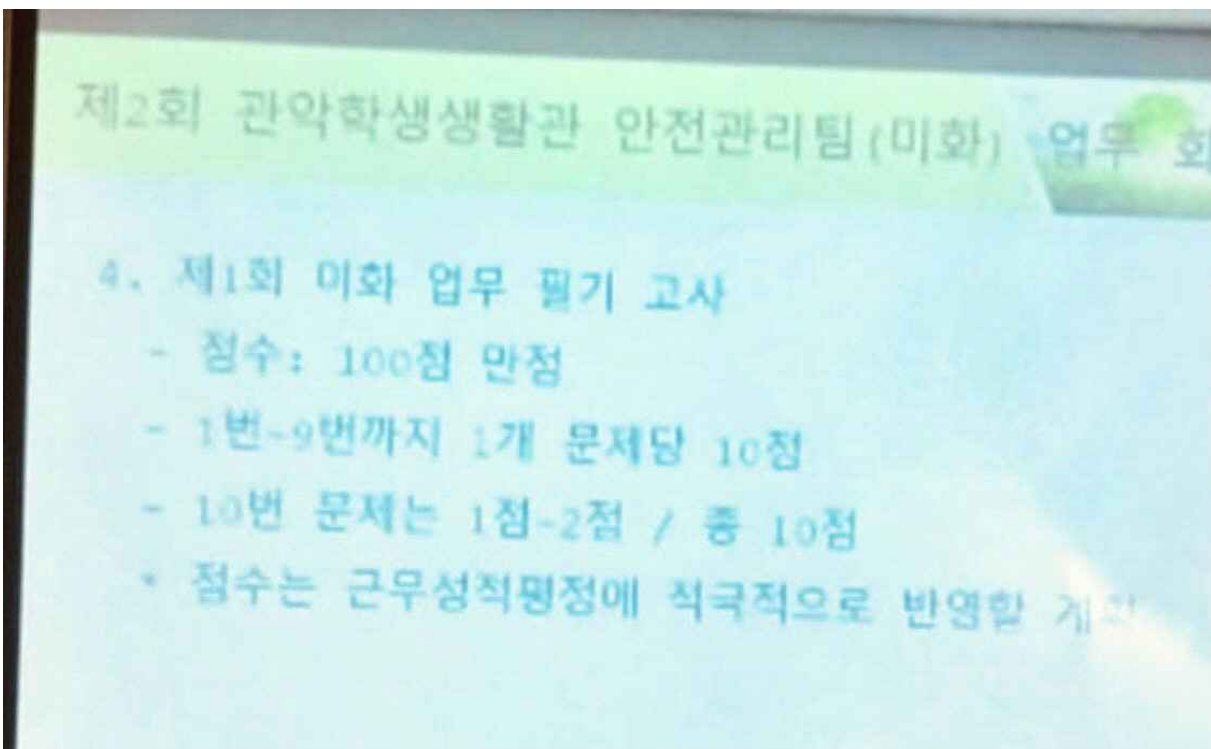
- 필기도구 미지참 감점: 일단 감점 언급했다는 것은 가해자들도 인정. 하지만 감점은 농담조 였고, 해당 팀장이 평가권과 인사권이 없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 해당 언급을 농담으로 받아들일지 아닌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는 권력관계가 고려되어야 함. 노동조합이 확보한 근무평가서에는 해당 팀장이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음.
- 제초작업: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제초작업, 또랑 치우기등 어려움 호소. 회의 때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자, 임금을 줄이고 남는 인건비로 외주 줄 수도 있다고 하자, 고인은 “임금 삭감은 노동조합과 상의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협박으로 들린다”라고 항변 했다 함.
- 청소검열: 기존에 없던 청소 검열이, 안전관리팀장 6. 1.자로 변경 후 시행됨. 청소검열은 6월 21일 공지되었고, 6월 22일~23일 양일간 실시됨. 행정 실장, 부장, 팀장등 3~4명이 몰려 다니며, 검열하였고 이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유발. 시험기간이었고, 퇴소기간이었기 때문에 힘겨움이 가중됨.
- 점심시간 감시: 12시 전에 식사 여부 보고케 하고 감시.
- 시험: 관악학생생활관은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라는 시험 문제. 각 건물 준공년도 쓰라는 시험문제. 시험본다는 예고도 없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것도 없이 갑자기 당일 현장에서 위와 같은 시험을 실시.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갑질임. 가해자들은 고인은 1등이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핑계 되나, 1등도 경쟁이나 시험에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고인도 시험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도 받고 공분했다 함. 또한 청소 노동자 중 1명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울었다고 함. 가해자들은 2차까지만 시행하고 종료했다고 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시험을 없애겠다고 들은 바 없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시행했을 것으로 생각.

또한 해명에서 해당 팀장은 평가자가 아니라고 하나, 확보된 “안전관리팀 근

무평

가서 C”라는 문서에는 “평가: 담당 팀장”이 명기되어 있음.

해당 시험의 활용 여부에 대하여, 학교는 선의로 한 것이라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확보한 시험 장면 사진에는 “점수는 근무성적 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윗선? 관장, 부관장 포함 운영실무위원회(6/16)

- 직원 관리 과정에서 교육효과와 사기 진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 요소를 활용할 것

관리팀 미화 업무 논의 및 교육훈련 관련	<p>사례가 많은 만큼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무위원회 논의사항 전달, 직원 내부 결속력 증진 도모 - 8-17시 사이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 인원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교육 - 직원 관리 과정에서 교육효과와 사기 진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 요소를 활용할 것 -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되 BTL운영사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도 참고할 것 - 2학기 대면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내
------------------------	---

□ 입장

1. 노동조합

- 7/13 서울대 오세정 총장 입장문 유감. 무엇보다 사과 언급 없음. 제3자의 관점.
- 진상 조사를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공동조사단 거부 및 학내 인권센터를 통한 셀프조사 입장에 대해 유감. 인권센터는 운영위원으로 2차가해자인 구민교와 이 사건 당사자 및 책임져야할 입장인 기숙사 관장 노유선, 학교 사무국장 박용수가 운영위원임. 그러므로 인권센터가 조사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고, 도둑당한 사람을 도둑이 조사하는 것과 같음. 그러므로 인권센터 조사 반대함. 유족 및 현장 노동자도 뜻을 함께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진상조사는 노사공동조사단(노동조합+학교+국회 등 중립적인 제3자)을 통해 해야 한다고 요구함. 공동조사단?

2. 서울대

- 7/13 서울대 오세정 총장 입장은 사과는 없음.

- 구민교 학생처장 보직사임 수용.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하고 조사 후 관련 조치 계획이라 함.

3. 고용노동부

- 7/14 안경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사 및 서울대에 필요한 조치할 계획임.

- 일부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부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고,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 생각해볼 문제

※ 어쩌면 사용자의 태도가 더 문제(2차, 3차 피해 유발)

- 사과 없음(안타까움, 애도와 위로=> 제3자도 할 말. 책임감 1도 느껴지지 않음)
- 축소/은폐/왜곡/심각성 모름(해당 팀장 상부 보고 시, 근무평정 반영 문구 삭제)
- 심지어 2차 가해(학생처장, 지도교수, 기숙사 부관장)
- 사실관계 무엇을 통해 어떻게 알았을까?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 현장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말은 못 믿는가?

※ 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현장 노동자 무시.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업무 폭증에 대한 무관심, 제초작업, 하필 가장 힘든 때 검열(시험기간+퇴사시점)

※ 갑질은 권력관계와 구조 문제

-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FACT)/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개인차는 어느 사회나 존재), 일제 시대가 좋았다. 발전시켰다. => 본질과 거리가 먼 이야기 침소 봉대.

- 권력과 구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음. 권력의 불균형.

누군가 소수는 칭찬, 누군가는 1등 => 본질을 가릴 수 있는지? 순전히 사적 영역이 나의 옷 취미가 왜 공개적이고 공적인 도마에 올라 평가되어야 하는가 권력을 가진 개인의 시선으로? 칭찬 받은 자도, 칭찬 받지 못하는 자도 권력자의 취향에 맞춰야하는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질.

설국열차.바퀴벌레 양갱?

※ 직장괴롭힘의 명백한 한계

- 처벌 조항 없음(10월 이후 과태료 부과, 한계 명확. 수사가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
-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구조(사용자에게 조사권한 또는 의무 부과)
- 객관적 조사 누가 판단?
- 조사하고 립서비스용 대책 제출하면 더 이상 노동부 개입 근거가 없음.

※ 노동조합과 외부세력

- 분리 전략일 뿐. 노동조합 자체가 현장 노동자로 구성. 고인 및 유족도 조합원.
- 유족 호소 노동조합 아니면 우리 같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근무성적평가서 C

〈2021. 6. 16.(수)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 미화관리 부문별 평가점수

- 관련근거: 취업규칙 제7조(복무에 관한 직원의 의무)
- 대상: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재정생활관 919 A, B, C, D
- 인원: 홍숙자 선생님 외 2명
- 단위: 일일 평가
- 평가: 담당 팀장

□ 미화관리 부문별 평가점수

구분	내용	배점	점수	비고
1	근무시간 준수	10점		
2	업무 태도	10점		
3	협업 능력 및 친절도	10점		
4	복장 준수	10점		
6	동 입구 출입문 청결도	5점		
7	동 현관 및 로비 청결도	5점		
8	계단 및 난간 청결도	5점		
9	복도 및 창문 청결도	5점		
10	엘리베이터 내부 청결도	5점		
11	쓰레기통 및 주변 청결도	5점		
12	청소도구 정리	5점		
13	동 주변 예초작업 정도	5점		
14	동 주변 벽면 및 게시판 청결도	10점		
15	지하주차장 청결도	10점		
총점		100점		

※ 총점 60점 미만 시 과락

제1회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

<2021.6.7>

□ 소속:	[Redacted]
□ 담당 동:	[Redacted]
□ 성명:	[Redacted]

점수
30
감독관: [Signature]

1.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 [Redacted] 관악 학생 생활관 >
2. 현재 속해 있는 팀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세요.
 < 위생 생활 안전관리팀 위생 >
3.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년도는? (A) >
 - ① 1965년
 - ② 1968년
 - ③ 1975년
 - ④ 1980년
4. 학부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A)
 - ① 921동, 919A동, 918동, 923동
 - ② 900동, 903동, 917동, 925동
 - ③ 906동, 915동, 916동, 922동
 - ④ 919B동, BK동, 가족동, 906동
5. 대학원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
 - ① 900동, 가족동, BK동, 906동
 - ② 902동, 917동, 918동, 가족동
 - ③ 919A동, 919C동, 925동, 915동
 - ④ 901동, 903동, 905동, 907동

6. 우리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 ① 청소 업무
- ② 예초, 제초 작업 업무
- ③ 낙엽제거 및 제설 작업 업무
- ④ 벽면 페인트 칠 업무

7. 919동의 준공연도는? (2)

- ① 1977년
- ② 1983년
- ③ 2003년
- ④ 2010년

8. 921동~926동의 준공연도는? (3)

- ① 1969년 전후
- ② 1976년 전후
- ③ 1983년 전후
- ④ 1991년 전후

9. 자신이 근무하는 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 119P 외출다 >

10. <보너스 문제>

우리팀 직원 선생님들의 담당동과 존함을 함께 작성해 주세요.

예시) 917동 - 수추훈 선생님

<
<
<
<
<
<
<
<
<
<
<
<
<
<
<

제2회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

<2021. . .>

□ 소 속:	
□ 담당 동:	
□ 성 명:	

점수
감독관:

1.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명칭을 한자로 작성해 주세요

<

>

2.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명칭을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

>

3.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년도는?()

- ① 1950년
- ② 1967년
- ③ 1973년
- ④ 1975년

4. 관악학생생활관의 총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① 2,430명
- ② 5,520명
- ③ 6,170명
- ④ 6,360명

5. BK생활관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① 200명
- ② 290명
- ③ 300명
- ④ 390명

6. 가족생활관의 총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 ① 100세대
- ② 150세대
- ③ 200세대
- ④ 250세대

7. BK생활관의 준공연도?

- ① 1983년
- ② 1996년
- ③ 2002년
- ④ 2003년

8. 900동~906동의 준공연도는?

- ① 1980년
- ② 1995년
- ③ 2010년
- ④ 2015년

9. 우리 팀의 근무시간은?

- ① 07:00 ~ 12:00, 13:00 ~ 16:00
- ② 08:00 ~ 11:30, 13:00 ~ 17:00
- ③ 08:00 ~ 12:00, 13:00 ~ 17:00
- ④ 09:00 ~ 12:00, 13:00 ~ 17:00

10. 담당 동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대응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2)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나요? (ㄱ)

2-1) 팀장이 미화 회의 때, 복장을 지적하며 감점 1점을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네.

2-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수치심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나요? 네.

이유: 양복에 자괴감을 느꼈다.

3-1) 팀장이 미화 회의 때, 수첩이나 필기구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감점 1점을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ㄱ).

3-2) 위 사항과 관련하여 수치심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나요? 네.



4-1) 팀장이 기관 설립년도 등을 문제로 내어 미화 회의 때, 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나요? 네. 잔액이 못해 부끄러웠다.

4-2) 위 사항과 관련하여 모욕감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나요? 네

5-1) 팀장 변경 후, 6월 22일~23일 양일간 청소 상태 점검을 행한 일이 있나요? 네. 유리창 청소 개끗이 한다고 칭찬 받았는데

같은 건물 청소하면 똑같은 칭찬을 들었다.

현장 진술서(일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국회 토론회 발제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재현 학생대표

안녕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약칭 비서공) 학생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다루는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가 아닌 산재 공동조사단 조사를 주장하는 이유

서울대학교 당국은 이번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갑질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센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고인이 소속된 민주일반노동조합은 인권센터 조사가 아니라 사측과 노조 및 국회 전문가 등 제3자가 포함된 산업재해 공동조사단을 결성하여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뢰성 없는 인권센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비서공 또한 인권센터 조사가 아닌 산재 공동조사단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그동안 보여온 모습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대 인권센터는 센터에서 주최하는 인권주간에 교수의 학생 대상 권력형 갑질 및 성폭력과 관련된 코너를 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사회에서 오랫동안 인권주간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는 학보사 대학신문 기자들이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하자 인권센터가 학생 기자들이 교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사회학과 H교수나 서어서문학과 A교수, 음대 B·C 교수 등 이어지는 알파벳 교수들의 권력형 갑질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조사에의 학생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솜방망이 처벌 권고만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인권센터가 학생을 동등한 학교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에, 저희 학생들은 인권센터가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학교 당국의 시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비록 독립성 있는 조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분명 학생처의 산하에 놓인 기구입니다. 전 학생처장의 SNS 발언이 큰 물의를 빚었던 상황에서 학생처 산하에 위치한 사측 기구의 조사는 사측만의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갑질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강도를 비롯한 노동환경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인데, 포괄적 노동환경을 인권센터에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인권센터 조사를 고수하지 말고, 이 사안에 있어서 노사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조사단 결성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의 거부로 인해 노사 공동조사단 결성이 어려워진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객관적 조사단을 통한 조사를 비롯하여 국회 청문회 시행,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년도 안 되어 또다시 이어진 죽음, 차별적 고용구조가 근본적 원인

지난 2019년 8월 9일, 폭염 속 공대 302동의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우리는 한 명의 청소노동자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노동자와 학생들의 요구 끝에 학교 측은 2020년 말에 휴게공간에 대한 일정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주기 추모를 지내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청소노동자분의 죽음이 갑질과 높은 노동강도 속에 발생하는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열악한 휴게공간, 비인간적 직장 내 괴롭힘,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 등은 모두 포괄적인 노동환경의 문제이며, 이렇게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서울대 내에서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노동자를 바라보는 학교 당국의 차별적 인식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아 통제하고, 이를 위해 차별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서울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18년경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총장 발령 정규직인 법인직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과 복지 등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했고 전환 이전보다 처우가 더욱 악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무기직으로의 전환도 진행되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에 놓여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의 청소노동자들도 용역 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년이나 처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였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 중에는 매 6개월 혹은 1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인 계약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나 계약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기숙사의 재건축 예정을 핑계로 삼아 응하지 않고 있지만,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글로벌학생생활관은 BTL 민자 기숙사로, 청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가 용역에 외주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노동의 현실입니다. 서울대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하여 차별을 시정하는 ‘진짜 정규직화’는 요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총장 발령 법인직원과는 달리 각 기관 기관장 및 단과대 학장이 발령 및 인사관리의 권한을 갖는 다수 자체직원의 존재는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를 드러냅니다. 고인을 비롯한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은 시설관리직 직군으로 분류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총장이 아닌 관악학생생활관 관장이 발령하는 자체직원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169명이 정원인데다 노후 시설로 인해 엘리베이터도 부재한 기숙사 925동을 한 사람의 청소노동자가 담당해야 하는 비인간적 노동강도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무책임한 고용형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해도 이를 위한 인건비 증액 등을 대학본부와 총장이 책임지지 않고 기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장인 서울대가 책임 있게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비서공을 비롯한 학생들과 학내 여러 노동조합들은 4월 30일까지 총장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공동성명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장 발령 법인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긴밀히 조율하는 학교 본부에서 저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더는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산업재해로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인건비와 인사관리를 대학본부가 평등하게 책임지는 고용구조가 필수적입니다.